인문계열

국어 영역

가천대

[1] (가)는 학생회 선거 후보자의 공약 소개 글 일부이고, (나)는 공약 소개 글 작성 이전에 후보자와 선거 운동원이 나눈 대화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학생회장 후보자 ○○○입니다.

평소에 친구들과 나눴던 학교에 대한 불만이나 요구 사항들, 너무 많지요? 지금까지 생각만 하셨다고요? 저 ○ ○ ○ 에 투표하시면 이런 생각이 실현됩니다. 청와대에 국민을 위한 청원제가 있다면, ○ ○ 고에는 여러분을 위한 학생 청원제가 있습니다.

'○○고 학생 청원제'는 학생이 학교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시정을 요구하거나 희망 사항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다수 학생의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 학교가 답변을 해 학생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청원 참여는 우리 학교 학생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쉽고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 누리집에 청원 게시판을 만들어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실명이 공개되는 것이 부담스러워 망설여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학생회에서는 별도의 인증 절차 없이 청원 글을 바로 작성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학생이 직접 청원하고 학생이 직접 동의하는 그야말로 학생만의 청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모든 청원에 답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기된 청원은 등록일로부터 30일간 전교생 중 3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청원으로 성립됩니다. 이렇게 청원이 성립된 경우 학생회장이 학교장의 의견을 듣고 청원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하게 됩니다.

청원의 진행 과정은 4단계입니다. 1단계는 학교 현안, 사업 등에 대한 학생의 신청으로 청원이 시작되는 단계입니다. 2단계는 청원 등록일로부터 30일간 동의가 진행되는 단계이고, 3단계는 30일 동안 학생 300명 이상이 동의하여 청원이 성립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 4단계는 청원 성립 건에 대해서 청원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학생회장이 교장 선생님의 공식 답변을 듣고 이를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단계입니다.

(나)

학생: 그런데 너의 공약에 비판적인 학생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참여 과정에서 나타나는 맹점도 솔직하게 제시하면서 공약의 장점을 최대한 부각해야 하지 않을까?

후보자: 공약의 장단점을 모두 소개하는 솔직함도 좋지만 모든 제도가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 ㉠공약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언급하고, 이에 대한 보완책도 함께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

문제 저작권: 가천대학교 · 조판: SN독학기숙학원 (학습용)
정답 및 해설은 SNarGPT(snarGPT.ai)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나)의 ㉠이 반영된 문장을 (가)에서 찾아 첫 어절과 마지막 어절을 순서대로 쓰시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3)

제4차 산업 혁명의 본격적인 도래와 함께 사회 변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 복잡하고 다양한 공공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노력도 점점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능력 자체가 무능해졌다기보다는 문제의 성격 자체가 정부가 감당하기에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시민들은 자신들이 ⓑ직면한 문제를 정부에 의존하기보다는 스스로 해결하려는 시도를 더 많이 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의 하나로 '시빅 테크'가 최근 부상하고 있다. 시빅 테크는 '시민' 혹은 '시민의'라는 뜻을 가진 'Civic'과 '기술'이라는 뜻을 가진 'Tech'가 결합된 말이다. 자발적으로 모인 시민이 정보 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공공 문제나 사회 문제의 해결책을 직접 모색하는 시민운동 또는 시민 참여를 의미한다.

[A]

시빅 테크의 등장은 정보 통신 기술의 발전과 함께하는 디지털 환경의 형성, 행정 기관 및 공적 기관을 중심으로 한 보유 데이터(공공 데이터)의 개방 움직임을 배경으로 한다. 공공 데이터는 공공 기관에서 생성,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 것을 말한다. 정보 통신망의 구축에 따라 사회 각 부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건 및 공공 데이터가 시민들에게 상시적으로 노출되면서 사회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문제의식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정부가 독점하며 진행하던 일방적.하향식 정책 관리 방법이 시민 주도의 자발적.상향식 방법으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시빅 테크는 '시민들이 정부가 제공하는 정보 통신 기술과 공공 데이터를 활용하여 직접 또는 주도적으로 공공 문제를 해결하려는 행위'이다.

새로운 시민 참여로서의 시빅 테크는 전통적인 시민 참여와 달리, 시민 단체 및 지역 공동체 등과 같은 전통적인 매개 집단이나 조직의 틀에 얽매이지 않는다. 대신 수많은 개인이 서로 직접 연결되어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지식과 대안을 함께 만들고 공유할 수 있게 한다. 즉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사회 문제를 인식하고, 참여 의제를 설정하며, 자발적으로 모여들고,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도모함으로써 공익을 실현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핵심적으로 사용되는 수단이 인공 지능, 빅 데이터, IoT 등의 지능 정보 기술이다. 인공 지능 기술은 특정 분야 및 목적에 대하여 추론 능력, 인지 능력, 학습 능력 등 사람의 지능을 정보 통신 기술을 통해 일부 구현한 기술이다. 인공 지능 기술은 전문가가 아니어도 누구나 원하는 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및 콘텐츠를 사용자 맞춤형으로 가공하여 제공한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시. 공간에 구애받지 ⓒ 않고 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 빅 데이터란 기존의 데이터베이스로는 처리하기 어려울 정도로 방대한 양의 데이터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이다. 이를 바탕으로 발생 가능한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고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 봄으로써 선제적 대응을 통한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 IoT는 사람, 사물, 서비스 등의 분산된 환경 요소가 상호 협력적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사물 공간 연결 인프라로써 사람의 개입 없이 다양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할 수 있게 한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정보를 손쉽게 제공받음으로써, 시민들이 보다 다양한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용이해져 커뮤니티의 확대도 촉진된다. 이처럼 지능 정보 기술은 전문 지식과 정보 접근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춤으로써 시민이 사회 참여를 위한 효과적 도구를 제작하고 올바른 의견을 제시하는 데 도움을 준다.

2. <보기>를 '시빅 테크'의 사례로 볼 수 있는 이유를 제시문의 [A]에 나타난 '시빅 테크'의 정의에서 찾아 서술하시오.

< 보 기 >

20××년 11월 말, 기습 폭설이 ○○시를 덮쳤다. 눈보라 때문에 전신주가 쓰러지는 바람에 화재가 많이 발생했다. 하지만 폭설로 소방관이 출동하기 어려웠으며, 높이 쌓인 눈 속에 마을 곳곳의 소화전이 파묻혀 소화전을 찾지 못해 불을 신속하게 끄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마을의 몇몇 사람이 이 문제를 보고 누리 소통망[SNS]에 마을이 처해 있는 문제 상황을 알리고, 마을 지도 위에 소화전 위치를 표시한 '소화전 입양하기' 앱을 만들어 게시했다. '소화전 입양하기' 앱에 필요한 소화전의 위치 정보는 ○○시 누리집에 게시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마을 주민들은 누리 소통망을 통해 마을의 문제 상황을 파악하고 마을의 다른 주민들에게도 정보를 공유했다.

①: _____

②: _____

문제 저작권: 가천대학교 · 조판: SN독학기숙학원 (학습용)
정답 및 해설은 SNarGPT(snarGPT.ai)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제시문의 ⓐ~ⓒ에서 각각 관찰되는 음운의 변동을 <보기>에서 모두 찾아 쓰시오.

< 보 기 >

거센소리되기, 구개음화, 된소리되기, 모음 탈락, 반모음 첨가, 비음화, 유음화

ⓐ:

ⓑ:

ⓒ:

[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동서양을 막론하고 역사가 진보한다는 관점은 근대에 이르러서야 나타났다. 진보 사관이 나타나기 전 고대 중국과 그리스.로마에서 공통적으로 유행했던 전통적 역사관은 대체로 감계(鑑戒) 사관, 상고 사관, 순환 사관이었다. 감계 사관이란 역사 속에서 후대에 귀감이 될 만한 도덕적 규범을 찾아 그것을 역사적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자 하는 교훈적 역사관을 가리킨다. 상고 사관은 이상적 가치 기준을 고대에서 찾는 것을 말한다. 즉 아득한 고대에 일종의 황금시대*가 있었으나 세월이 흐르면서 윤리가 쇠퇴하였으므로 다시 고대의 이상적 원형으로 회귀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순환 사관은 마치 자연 현상이 주기를 가지고 반복해서 나타나듯이 역사의 흥망성쇠도 시간에 따라 비슷한 양상이 되풀이된다는 관점이다. 이 세 가지의 역사관은 서로 강력한 연결 고리를 형성하여, 이상적 기준을 고대에서 찾고, 선대의 원형과 후대의 변질이 끊임없이 반복.순환한다고 보는 관점을 형성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전통적 역사관은 역사가 진보한다는 관점과는 거리가 멀다고 볼 수 있다.

역사가 진보한다는 관점은 17세기 유럽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여 18세기 계몽사상기를 거치며 급속히 확산되었고, 19세기에는 지배적인 관점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이러한 흐름을 선도한 것은 17~18세기 유럽의 지성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이른바 '고대인과 현대인의 논쟁'이었다. 이 논쟁의 핵심은 당시 스스로를 '현대인'이라고 여겼던 '근대인들'이 학식 면에서 이미 '고대인'보다 우수한지에 대한 논란이었으며, 이러한 논쟁은 진보 사관이 나타나게 되는 시발점이 되었다. 고대에는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철학자들이 변함없는 권위의 상징이었으며, 당시에는 모든 문제 제기가 그들로부터 시작되고 그에 대한 대답 역시 그들의 저작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었다. 하지만 근대에 들어 인간의 이성을 기반으로 한 과학 혁명이 진행되어 세계와 자연을 해석하는 새로운 방법과 개념이 제시되면서 고대 철학은 점차 힘을 잃게 되었다.

고대인을 앞섰다고 생각했던 근대인들은, 귀납법을 정리한 베이컨과 방법론적 회의를 주장한 데카르트와 같이 모두 새로운 과학 개념으로 무장하고 있었다. 이들은 고대를 언제나 회귀해야 할 영원한 이상이 아니라 단지 '유년 시절'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인류 역사의 진행 과정은 마치 한 인간이 태어나 성장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생각하면서 근대를 어른에, 고대를 어린아이에 비유했다.

진보 사관의 절정을 극명하게 보여 주는 사조는 근대의 실증주의이다. 콩트는 □실증 정치학 체계□에서 '인류의 3단계 진화 법칙'을 제시했는데, 그에 따르면 인류는 가족에 기초해 사제와 군인이 지배하는 신학적 단계인 고대에서, 국가를 중심으로 사제와 법률가가 득세한 형이상학적 단계인 중세로, 최종적으로는 산업 경영자와 과학자의 가르침에 따라 전 인류를 사회 단위로 삼는 실증적 단계인 근대로 발전해 왔다는 것이다. 이처럼 그의 진보 사관은 과학적 지식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 그는 과학에도 각 발전 단계에 따른 위계가 존재하며 특히 자연 과학을 거쳐 발전하게 된 사회 과학이야말로 실증적 단계를 지탱해 나가는 근간이라고 보았다.

19세기 진보 사관은, 이전의 단순하고 낙관적인 관점과 달리 역사를 구성하는 요소들 간의 갈등을 전제로 하는, 좀 더 복잡하고 비판적인 관점을 보였다. 헤겔은 세계사의 전개를 자유가 확대되는 과정으로 보았다는 점에서 진보 사관의 관점을 따르고 있으며, 어떤 흐름이 있으면 반드시 그것에 반하는 다른 흐름이 있어 이 둘이 비판적으로 서로를 지양하며 발전해 간다는 변증법적 접근법을 주장하였다.

하지만 진보 사관은 20세기 들어, 특히 두 번의 세계 대전을 겪으며 급속히 약화되었다. 20세기의 지식인들은 두 번의 세계 대전을 경험하며, 인간의 역사가 과학의 발전과 사회적 평등에 바탕을 둔 희망찬 유토피아를 향하기보다는 오히려 비인간적인 살육과 전체주의적 독재가 횡행하는 암울한 디스토피아*로 귀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비록 세계 대전과 냉전은 종식되었지만 전 지구를 위협하는 생태계적 재앙과 핵전쟁에 대한 공포는 여전히 역사의 진보에 대한 믿음을 가로막고 있다.

*황금시대: 사회의 발전이 최고조에 이르러 행복과 평화가 가득 찬 시대.

*디스토피아: 사회의 부정적인 측면이 극단화한 암울한 미래상.

문제 저작권: 가천대학교 · 조판: SN독학기숙학원 (학습용)
정답 및 해설은 SNarGPT(snarGPT.ai)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보기>의 ① ~ ④ 와 가장 밀접한 역사관을 제시문에서 찾아 쓰시오.

< 보 기 >

① 플라톤은 인간 사회가 야만 상태에서 출발하여 문명을 이루었다가 큰 파국을 겪고는 다시 야만으로 돌아가는 변화를 해 왔다고 주장했다.

② 콩도르세는 인류의 발전을 가로막을 어떤 제한도 존재하지 않음을 천명하고, 마치 동물이 점점 자신의 육체적 기능을 발전시켜 왔듯이 인간 역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보았다.

③ 로마의 역사가 리비우스는 '역사서를 통해 국가가 모방할 것은 택하고, 치욕적이며 부끄러운 것은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④ 마르크스는 각 역사 시대가 서로 대립되는 두 세력 간의 끊임없는 투쟁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진단하고, 그 과정을 통해 프롤레타리아 사회주의가 승리함으로써 역사가 완성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①: _____

②: _____

③: _____

④: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5~6)

논리학의 관심은 인간의 추론 능력에 있으며 추론이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어떤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새로운 사실을 이끌어 내는 방법이다. 이러한 추론은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가능하며,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추론뿐만 아니라 판단과 같은 다른 종류의 사고 작용도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추론을 하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나 알 수 있는 사실을 어떤 언어 형식으로 표현하느냐가 중요하다.

논리학에서 말하는 언어적 표현의 기본 단위를 '명제'라고 부른다. 그것은 구체적인 언어로 표현된 문장이어야 하기 때문에 언어의 사용에 필요한 문법적인 제약을 받게 된다. 하지만 그 언어가 반드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의사소통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자연 언어일 필요는 없다. 우리가 원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는 언어라면 수식이나 코드(code)와 같은 인공 언어라도 상관없는 것이다.

우리말로 된 문장과 영어로 된 문장이 똑같은 하나의 사실을 진술한다고 할 때 그 두 문장이 표현하는 명제는 같다. 어떤 사실을 진술하는 명제는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다. 이때 한 명제가 지닌 참과 거짓의 속성을 진릿값이라고 한다. 한 명제의 진위 여부는 그 진술이 사실과 부합되면 참이 되고 그렇지 못하면 거짓이 된다. 그런데 논리학에서는 사실과의 부합 여부를 물어보지 않는 언어 세계에 대한 명제를 다루기도 한다. 이를테면 '아버지는 남자이다.'와 같은 명제는 그것의 진위를 가려내기 위해 사실 여부를 물어볼 필요가 없다. 이 명제의 의미를 이해하는 사람은 누구나 곧 그것이 참 명제임을 알 수가 있다. '남자'라는 말의 뜻이 '아버지'라는 말의 뜻 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명제가 맺어 주는 두 개념의 관계에 의해서 진위를 파악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진위가 판단되는 명제를 '분석 명제'라고 한다.

분석 명제가 아니면서, 사실과의 부합 여부에 의존하지 않고 진위를 판단할 수 있는 명제도 있다. ㉠'지금 이곳은 비가 오거나 비가 오지 않는다.'처럼 하나의 주어와 서술어로 구성된 '단순 명제'가 둘 이상 결합한 명제를 '합성 명제'라고 한다. '지금 이곳은 비가 오거나 비가 오지 않는다.'는 어떠한 경우에도 참이 되는 문장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이 된다. 반면 '우리 반 학생들은 모두 교복을 입었지만, 우리 반의 어떤 학생들도 교복을 입지 않았다.'라는 명제는 문장 구조상으로 거짓이 될 수밖에 없다. 이처럼 두 개의 단순 명제로 구성된 합성 명제도 그것의 진위를 가려내기 위해 사실 여부를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다.

개념의 관계나 문장 구조에 의해 명제의 진위를 판단하는 것 이외에도 한 명제와 몇 개 명제들과의 관계에 의해서 진위를 결정하는 방법이 있다. 예를 들면 '아리스토텔레스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이다.'라는 명제가 참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려면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을 소개해 주는 철학사 책이나 철학 백과사전을 펼쳐 볼 수 있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가 아니다.'라는 명제의 진위를 판별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가 아니었던 사람들 중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있는지를 알아본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일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이다.'라는 긍정 명제의 진위를 가려내어 그것이 참이면 '아리스토텔레스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가 아니다.'라는 부정 명제는 거짓이라고 판단한다.

한 명제의 진릿값이 다른 명제나 명제들의 진릿값에 의해서 결정되는 또 다른 예는 논리적 함축 관계에 있는 명제들이다. 가령 a와 b가 형제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서 a가 c의 아들이고 b도 c의 아들이라든지, a가 c의 형제이고 b도 c의 형제라는 사실을 통해 a와 b가 형제임을 알게 되는 것은 그런 사실들을 진술하는 명제들 간의 논리적 함축 관계에 의해서 알게 되는 방법이다.

5. <보기1>의 ①과 ②가 각각 어떤 명제에 해당하는지 <보기2>에서 모두 찾아 서술하시오.

< 보 기 1 >

① 총각은 기혼의 성년 남자이다.

② 플라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이 아니다.

<보기2>

분석 명제, 단순 명제, 합성 명제, 긍정 명제, 부정 명제

①: _____

②: _____

문제 저작권: 가천대학교 · 조판: SN독학기숙학원 (학습용)
정답 및 해설은 SNarGPT(snarGPT.ai)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보기>의 내용을 참고하여 제시문의 ㉠이 항상 참이 되는 이유를 서술하시오.

< 보 기 >

어떤 두 명제 p, q 가운데 한 명제가 참이면 다른 명제가 거짓일 수밖에 없고, 또 둘 가운에 한 명제가 거짓이면 다른 명제가 참일 수밖에 없는 관계를 '모순 관계'라고 한다. 명제 p, q가 모순 관계에 있는 합성 명제는 항상 참이 된다. 반면 어떤 두 명제 p, q가 둘 다 참일 수는 없지만, 둘 다 거짓일 수 있는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명제 p, q 사이의 관계를 '반대 관계'라고 한다.

문제 저작권: 가천대학교 · 조판: SN독학기숙학원 (학습용)
정답 및 해설은 SNarGPT(snarGPT.ai)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 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앞부분의 줄거리] 북곽 선생은 마을에서 학식이 높기로 유명한 선비이나, 한밤중에 과부와 밀회를 하는 장면을 사람들에게 들킬 위기에 처한다. 때마침 범이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마을로 내려온다.

북곽 선생은 몹시 놀라 뺑소니를 치면서도 남들이 자기를 알아볼까 두려워하였다. 그래서 다리를 들어 목에 걸치고는 귀신처럼 춤추고 귀신처럼 웃더니, 대문을 나서자 줄달음치다가 그만 들판의 구덩이에 빠져 버렸다. 그 속에는 똥이 가득 차 있었다. 구덩이에서 기어 올라와 고개를 내놓고 바라보았더니, 범이 길을 막고 있었다.

범은 얼굴을 찌푸리며 구역질을 하고, 코를 막고 고개를 왼쪽으로 돌리며 숨을 내쉬고는, "선비는 구린내가 심하구나!" 하였다.

북곽 선생이 머리를 조아리고 기어 와서, 세 번 절하고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들고는, "범의 덕이야말로 지극하다 하겠사옵니다. 대인(大人)은 그 가죽 무늬가 찬란하게 변하는 것을 본받고, 제왕은 그 걸음걸이를 배우며, 사람의 자식은 그 효성을 본받고, 장수는 그 위엄을 취하지요. 명성이 신령스러운 용과 나란히 드높아, 하나는 바람을 일으키고 하나는 구름을 일으키니, 하계에 사는 이 천한 신하는 감히 그 아랫자리에서 모시고자 하옵니다." 하였다. 그러자 범은 이렇게 꾸짖었다.

"가까이 오지 말라! 예전에 듣기를 유(儒)는 유(諛)*라더니, 과연 그렇구나. 너는 평소에 천하의 못된 이름을 다 모아 함부로 나에게 갖다 붙이다가, 이제 급하니까 면전에서 아첨을 하니, 장차 누가 너를 신뢰하겠느냐?

무릇 천하의 이치란 한가지다. 범이 실로 악하다면, 사람의 본성도 악할 것이다. 사람의 본성이 선하다면, 범의 본성도 선할 것이다.

- 박지원, 「호질(虎叱)」

*유(諛): 아첨할 유.

(나)

제5과장 양반·선비 마당

초랭이: 양반요, 나온 김에 서로 인사나 하소. (인사하는 행동)

양반: 여보게 선비, 우리 통성명이나 하세. 선비: 예, 그러시더.

(양반과 선비가 서로 절을 하려고 할 때, 초랭이가 양반 머리 위에 엉덩이를 돌려대고 선비에게 자기가 인사를 한다.)

초랭이: 헤헤…… 니 왔니껴?*

양반: 옛기, 이놈.

(중략)

선비: 여보게 양반 – 선비: 여보게 양반, 자네가 감히 내 앞에서 이럴 수가 있는가?양반: 허허, 무엇이 어째? 그대는 내한테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선비: 아니, 그라마 그대는 진정 내한테 그럴 수가 있는가.양반: 허허, 뭣이 어째? 그러면 자네 지체가 나만 하단 말인가?선비: 아니 그래, 그대 지체가 내보다 낫단 말인가?양반: 암, 낫고말고. 선비: 그래, 낫긴 뭐가 나아.양반: 나는 사대부의 자손일세. 선비: 아니 뭐라꼬, 사대부? 나는 팔대부의 자손일세. 양반: 아니, 팔대부? 그래, 팔대부는 뭐로?* 선비: 팔대부는 사대부의 갑절이지.양반: 뭐가 어째, 어흠, 우리 할뱀*은 문하시중을 지내셨거든.선비: 아, 문하시중. 그까짓 것…… 우리 할뱀은 바로 문상시대인걸.양반: 아니 뭐, 문상시대? 그건 또 머로? 선비: 에헴, 문하보다는 문상이 높고 시중보다는 시대가 더 크다 이 말일세.양반: 허허, 그것 참 빌 꼬라지 다 보겠네. 그래, 지체만 높으면 제일인가?선비: 에헴, 그라만 또 머가 있단 말인가? 양반: 학식이 있어야지, 학식이. 나는 사서삼경을 다 읽었다네.선비: 뭐 그까짓 사서삼경 가지고. 어흠, 나는 팔서육경을 다 읽었네.

양반: 아니, 뭐? 팔서육경? 도대체 팔서는 어디에 있으며 그래 대관절 육경은 또 뭔가? (초랭이는 여태까지 두 사람의 얘기를 귀담아듣다가 잽싸게 끼어든다.)

- 작자 미상, 「하회 별신굿 탈놀이」

*니 왔니껴?: 너, 왔습니까?

*뭐로?: 뭐야?

*할뱀: 할아버지.

7. 제시문 (가)와 (나)에서 <보기>의 ⓐ에 해당하는 단어를 모두 찾아 쓰시오.

< 보 기 >

풍자는 표현의 대상이 되는 현실의 특징, 현실을 바라보는 주체의 태도, 이를 표현하는 방법에서 다른 형식과는 차별되는 특징이 있다. 우선 풍자가 표현하려는 것은 현실의 부정적 측면이다. 풍자의 주체는 풍자의 대상을 직설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희화화나 자기 폭로 등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이러한 풍자의 방법으로 작가는 ⓐ언어유희의 기법을 활용한다. 또한 ⓑ인물의 우스꽝스러운 위장과 행위를 통해 비굴하고 떳떳하지 못한 태도를 희화화하기도 한다. 이러한 풍자는 독자의 비판적인 인식을 끌어내는 중요한 서사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①: _____ ②: _____ ③: _____
④: _____

8. 위 <보기>의 ⓑ에 해당하는 문장을 제시문 (가)에서 찾아 쓰시오.

문제 저작권: 가천대학교 · 조판: SN독학기숙학원 (학습용)
정답 및 해설은 SNarGPT(snarGPT.ai)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내 이상과 계획은 이렇거든요.

우리 집 다이쇼가 나를 자별히 귀애하고 신용을 하니깐 인제 한 십 년만 더 있으면 한밑천 들여서 따로 장사를 시켜 줄 그런 눈치거든요.

그러거들랑 그것을 언덕 삼아 가지고 나는 삼십 년 동안 예순 살 환갑까지만 장사를 해서 꼭 십만 원을 모을 작정이지요. 십만 원이면 죄선 부자로 쳐도 천석꾼이니 뭐, 떵떵거리고 살 게 아니라구요?

그리고 우리 다이쇼도 한 말이 있고 하니까 나는 내지인 규수한테로 장가를 들래요. 다이쇼가 다 알아서 얌전한 자리를 골라 중매까지 서 준다고 그랬어요. 내지 여자가 참 좋지요. 나는 죄선 여자는 거저 주어도 싫어요. 구식 여자는 얌전은 해도 무식해서 내지인하고 교제하는 데 안됐고, 신식 여자는 식자나 들었다는 게 건방져서 못쓰고, 도무지 그래서 죄선 여자는 신식이고 구식이고 다 제바리여요.

내지 여자가 참 좋지 뭐. 인물이 개개 일자로 이쁘겠다, 얌전하겠다, 상냥하겠다, 지식이 있어도 건방지지 않겠다, 좀이나 좋아!

그리고 내지 여자한테 장가만 드는 게 아니라 성명도 내지인 성명으로 갈고 집도 내지인 집에서 살고 옷도 내지 옷을 입고 밥도 내지식으로 먹고 아이들도 내지인 이름을 지어서 내지인 학교에 보내고…….

내지인 학교라야지 죄선 학교는 너절해서 아이들 버려 놓기나 꼭 알맞지요.

그리고 나도 죄선말은 싹 걷어치우고 국어만 쓰고요.

이렇게 다 생활 법식부터도 내지인처럼 해야만 돈도 내지인처럼 잘 모으게 되거든요.

(중략)

"사람이란 것은 누구를 물론허구 말이다, 아첨하는 것같이 더러운 게 없느니라."

"아첨이요?"

"저 위로는 제왕, 밑으로는 걸인, 그 모든 사람이 위선 시방 이 제도의 이 세상에서 말이다, 제가끔 제 분수대루 살어가는 데 있어서 말이다, 제 개성을 속여 가면서꺼정 생활에다가 아첨하는 것같이 더러운 것이 없고, 그런 사람같이 가련한 사람은 없느니라. 사람이란 건 밥 두 그릇이 하필 밥 한 그릇보다 더 배가 부른 건 아니니까."

"그건 무슨 뜻인데요?"

"네가 일본인 여자와 결혼을 해서 성명까지 갈고 모든 생활 법도를 일본화하겠다는 것이 말이다."

"네, 그게 좋잖어요?"

"그것이 말이다, 진실로 깊은 교양이나 어진 지혜의 판단에서 우러나온 것이라면 그도 모를 노릇이겠지. 그렇지만 나는 보매, 네가 그런다는 것은 다른 뜻으로 그러는 것 같다."

"다른 뜻이라니요?"

"네 주인의 비위를 맞추고, 이웃의 비위를 맞추고 하자고……."

"그야 물론이지요! 다이쇼의 신용을 받어야 하고, 이웃 내지인들하구도 좋게 지내야지요. 그래야 할 게 아니겠어요?"

"……."

"아저씨는 아직두 세상 물정을 모르시오. 나이는 나보담 많구 대학교 공부까지 했어도 일찌감치 고생살이를 한 나만큼 세상 물정은 모릅니다. 시방이 어느 세상인데 그러시우?"

"이 애?"

"네?"

"네가 방금 세상 물정이랬지?"

"네."

"앞길이 환하니 트였다구 그랬지?"

"네."

"환갑까지 십만 원 모은다구 그랬지?"

"네."

"네가 말하는 세상 물정하구 내가 말하려는 세상 물정하구 내용이 다르기도 하지만, 세상 물정이란 건 그야말로 그리 만만한 게 아니다."

"네?"

"사람이란 건 제아무리 날구 뛰어도 이 세상에 형적 없이 그러나 세차게 주욱 흘러가는 힘, 그게 말하자면 세상 물정이겠는데, 결국 그것의 지배하에서 그것을 따라가지 별수가 없는 거다."

"네?"

"쉽게 말하면 계획이나 기회를 아무리 억지루 만들어 놓아도 결과가 뜻대루는 안 된단 말이다."

- 채만식, 「치숙」

9. <보기>는 서술자의 서사 전략에 대한 설명이다. 제시문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서술자의 유형과 서사 전략을 <보기>에서 찾아 서술하시오.

< 보 기 >

서사 작품에서 서술자의 선택은 이야기를 전달하는 서사 전략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야기 밖의 서술자'는 인물과 사건 간의 거리두기를 통해 독자의 몰입을 방해하는 방식으로 현실 인식을 드러낸다. '이야기 안의 서술자'는 신빙성 없는 태도를 통해 자신의 무지함과 부도덕함을 스스로 폭로하기도 한다. 또한 '전지적 관점의 서술자'는 인물의 내적 심리를 구체적으로 전달하여 독자와의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한다.

① 서술자의 유형:

② 서사 전략:

문제 저작권: 가천대학교 · 조판: SN독학기숙학원 (학습용)
정답 및 해설은 SNarGPT(snarGPT.ai)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문계열

수학 영역

가천대

10. 정의역이 $\{x|x \geq 0\}$인 함수 $f(x) = ax^2$ $(0 < a < 1)$의 역함수를 $g(x)$라 하자. 두 곡선 $y = f(x)$, $y = g(x)$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S = \frac{3}{4}$일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는 다음의 풀이 과정을 완성하시오.

두 곡선 $y = f(x)$, $y = g(x)$의 교점의 x좌표는 $x = 0$과 $x =$ ①
이다.

따라서 넓이를 정적분으로 나타내면 $S =$ ②
이고, 이 적분의 값을 a에 대한 식으로 쓰면 $S =$ ③
이다. $S = \frac{3}{4}$이므로 상수 $a =$ ④
이다.

11. 1이 아닌 서로 다른 두 양수 a,b에 대하여 두 집합 A,B를
$A = \{1, \log_a b\}$, $B = \left\{\frac{3}{2}, 2, 3\log_2 a - 2\log_2 b\right\}$
라 하자. $A \subset B$ 일 때, ab^2의 값을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12. x에 대한 이차방정식 $kx^2 - (k+2)x + (k+1) = 0$의 두 근이 $\sin\theta$와 $\cos\theta$일 때, θ의 값을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단, k는 상수이고 $0 \leq \theta \leq \pi$)

13. 수열 $\{a_n\}$은 $a_1 > 0$, $a_4 + a_5 = 0$이고,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a_{n+2} = a_{n+1} - a_n$을 만족시킨다. 수열 $\{a_n\}$의 첫째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S_n이라 할 때, $S_n < 0$을 만족시키는 300이하의 자연수 n의 개수를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문제 저작권: 가천대학교 · 조판: SN독학기숙학원 (학습용)
정답 및 해설은 SNarGPT(snarGPT.ai)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 함수 $f(x)=\begin{cases}\frac{\sqrt{x+1}-a}{x-1} & (x>1)\\ \frac{x+b}{\sqrt{1+x}-\sqrt{1-x}} & (x\le 1)\end{cases}$ 가 $x=1$에서 연속일 때, 상수 a와 b의 값을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15.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 점 P,Q의 시각 $t(t\ge 0)$에서의 위치 x_1, x_2가 $x_1=3t^3-3t^2+7t$, $x_2=2t^3+3t^2-2t$이다. 두 점 P,Q가 동시에 원점을 출발한 후 처음으로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 t_a와 처음으로 만나는 순간 t_b의 값을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문제 저작권: 가천대학교 · 조판: SN독학기숙학원 (학습용)
정답 및 해설은 SNarGPT(snarGPT.ai)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답 및 해설

국어

[문제 1]

1. 일반 정보

유형	논술고사	
전형명	논술전형	
출제영역	국어	
출제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화법/작문
출제범위	핵심개념 및 용어	
예상 소요 시간	분 전체 80분	

2. 문항 및 제시문

※ (가)는 학생회 선거 후보자의 공약 소개 글 일부이고, (나)는 공약 소개 글 작성 이전에 후보자와 선거 운동원이 나눈 대화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학생회장 후보자 ○○○입니다.

평소에 친구들과 나눴던 학교에 대한 불만이나 요구 사항들, 너무 많지요? 지금까지 생각만 하셨다고요? 저 ○ ○ ○ 에 투표하시면 이런 생각이 실현됩니다. 청와대에 국민을 위한 청원제가 있다면, ○○고에는 여러분을 위한 학생 청원제가 있습니다.

'○ ○ 고 학생 청원제'는 학생이 학교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시정을 요구하거나 희망 사항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다수 학생의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 학교가 답변을 해 학생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청원 참여는 우리 학교 학생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쉽고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 누리집에 청원 게시판을 만들어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실명이 공개되는 것이 부담스러워 망설여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학생회에서는 별도의 인증 절차 없이 청원 글을 바로 작성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학생이 직접 청원하고 학생이 직접 동의하는 그야말로 학생만의 청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모든 청원에 답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기된 청원은 등록일로부터 30일간 전교생 중 3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청원으로 성립됩니다. 이렇게 청원이 성립된 경우 학생회장이 학교장의 의견을 듣고 청원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하게 됩니다.

청원의 진행 과정은 4단계입니다. 1단계는 학교 현안, 사업 등에 대한 학생의 신청으로 청원이 시작되는 단계입니다. 2단계는 청원 등록일로부터 30일간 동의가 진행되는 단계이고, 3단계는 30일 동안 학생 300명 이상이 동의하여 청원이 성립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 4단계는 청원 성립 건에 대해서 청원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학생회장이 교장 선생님의 공식 답변을 듣고 이를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단계입니다.

(나)

학생: 그런데 너의 공약에 비판적인 학생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참여 과정에서 나타나는 맹점도 솔직하게 제시하면서 공약의 장점을 최대한 부각해야 하지 않을까?

후보자: 공약의 장단점을 모두 소개하는 솔직함도 좋지만 모든 제도가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 ㉠ 공약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언급하고, 이에 대한 보완책도 함께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

(나)의 ㉠ 이 반영된 문장을 (가)에서 찾아 첫 어절과 마지막 어절을 순서대로 쓰시오.

3. 출제 의도

연설문의 설득 전략에 대한 이해를 평가하고자 함.

4. 출제 근거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수능 완성	EBS	EBS	2021	154

5. 문항 해설

- 첫 어절: 실명이
- 마지막 어절: 하겠습니다

6. 채점 기준

- '실명이'와 '하겠습니다'가 순서대로 정확하게 기술된 경우에만 정답으로 인정함.

예) 실명이, 하겠습니다

실명이~하겠습니다

- 정답 이외에 다른 내용을 추가로 기술한 경우는 오답으로 처리함.

답안	배점
실명이	5
하겠습니다	5

[문제 2]

1. 일반 정보

유형	논술고사	
전형명	논술전형	
출제영역	국어	
출제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국어 공통
출제범위	핵심개념 및 용어	독서, 이해
예상 소요 시간	5분 전체 80분	

2. 문항 및 제시문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3)

제4차 산업 혁명의 본격적인 도래와 함께 사회 변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 복잡하고 다양한 공공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노력도 점점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능력 자체가 무능해졌다기보다는 문제의 성격 자체가 정부가 감당하기에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시민들은 자신들이 ⓑ 직면한 문제를 정부에 의존하기보다는 스스로 해결하려는 시도를 더 많이 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의 하나로 '시빅 테크'가 최근 부상하고 있다. 시빅 테크는 '시민' 혹은 '시민의'라는 뜻을 가진 'Civic'과 '기술'이라는 뜻을 가진 'Tech'가 결합된 말이다. 자발적으로 모인 시민이 정보 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공공 문제나 사회 문제의 해결책을 직접 모색하는 시민운동 또는 시민 참여를 의미한다.

[A]

시빅 테크의 등장은 정보 통신 기술의 발전과 함께하는 디지털 환경의 형성, 행정 기관 및 공적 기관을 중심으로 한 보유 데이터(공공 데이터)의 개방 움직임을 배경으로 한다. 공공 데이터는 공공 기관에서 생성,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 것을 말한다. 정보 통신망의 구축에 따라 사회 각 부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건 및 공공 데이터가 시민들에게 상시적으로 노출되면서 사회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문제의식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정부가 독점하며 진행하던 일방적.하향식 정책 관리 방법이 시민 주도의 자발적.상향식 방법으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시빅 테크는 '시민들이 정부가 제공하는 정보 통신 기술과 공공 데이터를 활용하여 직접 또는 주도적으로 공공 문제를 해결하려는 행위'이다.

문제 저작권: 가천대학교 · 조판: SN독학기숙학원 (학습용)
정답 및 해설은 SNarGPT(snarGPT.ai)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민 참여로서의 시빅 테크는 전통적인 시민 참여와 달리, 시민 단체 및 지역 공동체 등과 같은 전통적인 매개 집단이나 조직의 틀에 얽매이지 않는다. 대신 수많은 개인이 서로 직접 연결되어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지식과 대안을 함께 만들고 공유할 수 있게 한다. 즉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사회 문제를 인식하고, 참여 의제를 설정하며, 자발적으로 모여들고,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도모함으로써 공익을 실현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핵심적으로 사용되는 수단이 인공 지능, 빅 데이터, IoT 등의 지능 정보 기술이다. 인공 지능 기술은 특정 분야 및 목적에 대하여 추론 능력, 인지 능력, 학습 능력 등 사람의 지능을 정보 통신 기술을 통해 일부 구현한 기술이다. 인공 지능 기술은 전문가가 아니어도 누구나 원하는 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및 콘텐츠를 사용자 맞춤형으로 가공하여 제공한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 빅 데이터란 기존의 데이터베이스로는 처리하기 어려울 정도로 방대한 양의 데이터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이다. 이를 바탕으로 발생 가능한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고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 봄으로써 선제적 대응을 통한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 IoT는 사람, 사물, 서비스 등의 분산된 환경 요소가 상호 협력적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사물 공간 연결 인프라로써 사람의 개입 없이 다양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할 수 있게 한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정보를 손쉽게 제공받음으로써, 시민들이 보다 다양한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용이해져 커뮤니티의 확대도 촉진된다. 이처럼 지능 정보 기술은 전문 지식과 정보 접근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춤으로써 시민이 사회 참여를 위한 효과적 도구를 제작하고 올바른 의견을 제시하는 데 도움을 준다.

<보기>를 '시빅 테크'의 사례로 볼 수 있는 이유를 제시문의 [A]에 나타난 '시빅 테크'의 정의에서 찾아 서술하시오.

<보기>

20××년 11월 말, 기습 폭설이 ○○시를 덮쳤다. 눈보라 때문에 전신주가 쓰러지는 바람에 화재가 많이 발생했다. 하지만 폭설로 소방관이 출동하기 어려웠으며, 높이 쌓인 눈 속에 마을 곳곳의 소화전이 파묻혀 소화전을 찾지 못해 불을 신속하게 끄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마을의 몇몇 사람이 이 문제를 보고 누리 소통망[SNS]에 마을이 처해 있는 문제 상황을 알리고, 마을 지도 위에 소화전 위치를 표시한 '소화전 입양하기' 앱을 만들어 게시했다. '소화전 입양하기' 앱에 필요한 소화전의 위치 정보는 ○○시 누리집에 게시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마을 주민들은 누리 소통망을 통해 마을의 문제 상황을 파악하고 마을의 다른 주민들에게도 정보를 공유했다.

①: _____

②: _____

3. 출제 의도

제시문의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문항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분석적으로 판단한 후에 그 결과를 정확하게 기술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4. 출제 근거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수능 완성	EBS	EBS	2021	190쪽

5. 문항 해설

제시문의 [A]에 나타난 '시빅 테크'는 정의는 '시민들이 정부가 제공하는 정보 통신 기술과 공공 데이터를 활용하여 직접 또는 주도적으로 공공 문제를 해결하려는 행위'이다. 이로부터 아래의 핵심 사항을 도출할 수 있다.

- 시민이 직접 또는 주도적으로 해결하였다.
- 공공 문제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였다.
- 정보 통신 기술을 활용하였다.
- 공공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보기>의 사례는 위 4가지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6. 채점 기준

- 각 항목의 핵심 내용이 표현된 경우에 정답으로 인정함.

- 정답과 다른 표현이 사용되더라도 의미가 동일하면 정답으로 처리함.
- 정답 이외에 관련이 없는 다른 내용을 추가로 기술한 경우에는 오답으로 처리함.

답안	배점
※ ①과 ②에 아래 4가지 중 2가지가 순서 상관없이 기술 가능함. - 시민이 직접 또는 주도적으로 해결하였다. - 공공 문제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였다. - 정보 통신 기술을 활용하였다. - 공공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①	5
②	5

[문제 3]

1. 일반 정보

유형	논술고사	
전형명	논술전형	
출제영역	국어	
출제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국어 공통
출제범위	핵심개념 및 용어	음운의 변동, 음운 현상, 문법
예상 소요 시간	5분 전체 80분	

2. 문항 및 제시문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3)

제4차 산업 혁명의 본격적인 도래와 함께 사회 변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복잡하고 다양한 공공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노력도 점점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능력 자체가 무능해졌다기보다는 문제의 성격 자체가 정부가 감당하기에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시민들은 자신들이 ⓑ직면한 문제를 정부에 의존하기보다는 스스로 해결하려는 시도를 더 많이 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의 하나로 '시빅 테크'가 최근 부상하고 있다. 시빅 테크는 '시민' 혹은 '시민의'라는 뜻을 가진 'Civic'과 '기술'이라는 뜻을 가진 'Tech'가 결합된 말이다. 자발적으로 모인 시민이 정보 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공공 문제나 사회 문제의 해결책을 직접 모색하는 시민운동 또는 시민 참여를 의미한다.

[A]

시빅 테크의 등장은 정보 통신 기술의 발전과 함께하는 디지털 환경의 형성, 행정 기관 및 공적 기관을 중심으로 한 보유 데이터(공공 데이터)의 개방 움직임을 배경으로 한다. 공공 데이터는 공공 기관에서 생성,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 것을 말한다. 정보 통신망의 구축에 따라 사회 각 부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건 및 공공 데이터가 시민들에게 상시적으로 노출되면서 사회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문제의식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정부가 독점하며 진행하던 일방적.하향식 정책 관리 방법이 시민 주도의 자발적.상향식 방법으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시빅 테크는 '시민들이 정부가 제공하는 정보 통신 기술과 공공 데이터를 활용하여 직접 또는 주도적으로 공공 문제를 해결하려는 행위'이다.

문제 저작권: 가천대학교 · 조판: SN독학기숙학원 (학습용)
정답 및 해설은 SNarGPT(snarGPT.ai)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민 참여로서의 시빅 테크는 전통적인 시민 참여와 달리, 시민 단체 및 지역 공동체 등과 같은 전통적인 매개 집단이나 조직의 틀에 얽매이지 않는다. 대신 수많은 개인이 서로 직접 연결되어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지식과 대안을 함께 만들고 공유할 수 있게 한다. 즉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사회 문제를 인식하고, 참여 의제를 설정하며, 자발적으로 모여들고,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도모함으로써 공익을 실현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핵심적으로 사용되는 수단이 인공 지능, 빅 데이터, IoT 등의 지능 정보 기술이다. 인공 지능 기술은 특정 분야 및 목적에 대하여 추론 능력, 인지 능력, 학습 능력 등 사람의 지능을 정보 통신 기술을 통해 일부 구현한 기술이다. 인공 지능 기술은 전문가가 아니어도 누구나 원하는 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및 콘텐츠를 사용자 맞춤형으로 가공하여 제공한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 빅 데이터란 기존의 데이터베이스로는 처리하기 어려울 정도로 방대한 양의 데이터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이다. 이를 바탕으로 발생 가능한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고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 봄으로써 선제적 대응을 통한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 IoT는 사람, 사물, 서비스 등의 분산된 환경 요소가 상호 협력적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사물 공간 연결 인프라로써 사람의 개입 없이 다양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할 수 있게 한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정보를 손쉽게 제공받음으로써, 시민들이 보다 다양한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용이해져 커뮤니티의 확대도 촉진된다. 이처럼 지능 정보 기술은 전문 지식과 정보 접근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춤으로써 시민이 사회 참여를 위한 효과적 도구를 제작하고 올바른 의견을 제시하는 데 도움을 준다.

제시문의 ⓐ~ⓒ에서 각각 관찰되는 음운의 변동을 <보기>에서 모두 찾아 쓰시오.

<보기>

거센소리되기, 구개음화, 된소리되기, 모음 탈락, 반모음 첨가, 비음화, 유음화

ⓐ:

ⓑ:

ⓒ:

3. 출제 의도

국어에서 관찰되는 다양한 음운의 변동을 이해하고, 실제 자료에서 관찰되는 이들 현상을 분석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4. 출제 근거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수능 완성	EBS	EBS	2021	190쪽

5. 문항 해설

'복잡하고'는 [복짜파고]로 발음되므로, '된소리되기, 거센소리되기'를 모두 확인할 수 있다. '직면한'은 [징면한]으로 발음되므로, '비음화'를 확인할 수 있다. '않고'는 [안코]로 발음되므로 '거센소리되기'를 확인할 수 있다.

6. 채점 기준

- ⓐ, ⓑ, ⓒ의 각 항목이 정확하게 기술된 경우에만 정답으로 처리함.
- ⓐ는 순서에 상관없이 2개 모두 기술된 경우에만 정답으로 처리함.
- 정답 외에 다른 답안을 추가로 기술한 경우는 오답으로 처리함.

답안	배점
ⓐ: 된소리되기, 거센소리되기	4
ⓑ: 비음화	3
ⓒ: 거센소리되기	3

[문제 4]

1. 일반 정보

유형	논술고사	
전형명	논술전형	
출제영역	국어	
출제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국어 공통
출제범위	핵심개념 및 용어	독서, 이해
예상 소요 시간	5분 전체 80분	

2. 문항 및 제시문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동서양을 막론하고 역사가 진보한다는 관점은 근대에 이르러서야 나타났다. 진보 사관이 나타나기 전 고대 중국과 그리스.로마에서 공통적으로 유행했던 전통적 역사관은 대체로 감계(鑑戒) 사관, 상고 사관, 순환 사관이었다. 감계 사관이란 역사 속에서 후대에 귀감이 될 만한 도덕적 규범을 찾아 그것을 역사적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자 하는 교훈적 역사관을 가리킨다. 상고 사관은 이상적 가치 기준을 고대에서 찾는 것을 말한다. 즉 아득한 고대에 일종의 황금시대*가 있었으나 세월이 흐르면서 윤리가 쇠퇴하였으므로 다시 고대의 이상적 원형으로 회귀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순환 사관은 마치 자연 현상이 주기를 가지고 반복해서 나타나듯이 역사의 흥망성쇠도 시간에 따라 비슷한 양상이 되풀이된다는 관점이다. 이 세 가지의 역사관은 서로 강력한 연결 고리를 형성하여, 이상적 기준을 고대에서 찾고, 선대의 원형과 후대의 변질이 끊임없이 반복. 순환한다고 보는 관점을 형성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전통적 역사관은 역사가 진보한다는 관점과는 거리가 멀다고 볼 수 있다.

역사가 진보한다는 관점은 17세기 유럽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여 18세기 계몽사상기를 거치며 급속히 확산되었고, 19세기에는 지배적인 관점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이러한 흐름을 선도한 것은 17~18세기 유럽의 지성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이른바 '고대인과 현대인의 논쟁'이었다. 이 논쟁의 핵심은 당시 스스로를 '현대인'이라고 여겼던 '근대인들'이 학식 면에서 이미 '고대인'보다 우수한지에 대한 논란이었으며, 이러한 논쟁은 진보 사관이 나타나게 되는 시발점이 되었다. 고대에는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철학자들이 변함없는 권위의 상징이었으며, 당시에는 모든 문제 제기가 그들로부터 시작되고 그에 대한 대답 역시 그들의 저작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었다. 하지만 근대에 들어 인간의 이성을 기반으로 한 과학 혁명이 진행되어 세계와 자연을 해석하는 새로운 방법과 개념이 제시되면서 고대 철학은 점차 힘을 잃게 되었다.

고대인을 앞섰다고 생각했던 근대인들은, 귀납법을 정리한 베이컨과 방법론적 회의를 주장한 데카르트와 같이 모두 새로운 과학 개념으로 무장하고 있었다. 이들은 고대를 언제나 회귀해야 할 영원한 이상이 아니라 단지 '유년 시절'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인류 역사의 진행 과정은 마치 한 인간이 태어나 성장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생각하면서 근대를 어른에, 고대를 어린아이에 비유했다.

진보 사관의 절정을 극명하게 보여 주는 사조는 근대의 실증주의이다. 콩트는 □실증 정치학 체계□에서 '인류의 3단계 진화 법칙'을 제시했는데, 그에 따르면 인류는 가족에 기초해 사제와 군인이 지배하는 신학적 단계인 고대에서, 국가를 중심으로 사제와 법률가가 득세한 형이상학적 단계인 중세로, 최종적으로는 산업 경영자와 과학자의 가르침에 따라 전 인류를 사회 단위로 삼는 실증적 단계인 근대로 발전해 왔다는 것이다. 이처럼 그의 진보 사관은 과학적 지식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 그는 과학에도 각 발전 단계에 따른 위계가 존재하며 특히 자연 과학을 거쳐 발전하게 된 사회 과학이야말로 실증적 단계를 지탱해 나가는 근간이라고 보았다.

19세기 진보 사관은, 이전의 단순하고 낙관적인 관점과 달리 역사를 구성하는 요소들 간의 갈등을 전제로 하는, 좀 더 복잡하고 비판적인 관점을 보였다. 헤겔은 세계사의 전개를 자유가 확대되는 과정으로 보았다는 점에서 진보 사관의 관점을 따르고 있으며, 어떤 흐름이 있으면 반드시 그것에 반하는 다른 흐름이 있어 이 둘이 비판적으로 서로를 지양하며 발전해 간다는 변증법적 접근법을 주장하였다.

문제 저작권: 가천대학교 · 조판: SN독학기숙학원 (학습용)
정답 및 해설은 SNarGPT(snarGPT.ai)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보 사관은 20세기 들어, 특히 두 번의 세계 대전을 겪으며 급속히 약화되었다. 20세기의 지식인들은 두 번의 세계 대전을 경험하며, 인간의 역사가 과학의 발전과 사회적 평등에 바탕을 둔 희망찬 유토피아를 향하기보다는 오히려 비인간적인 살육과 전체주의적 독재가 횡행하는 암울한 디스토피아*로 귀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비록 세계 대전과 냉전은 종식되었지만 전 지구를 위협하는 생태계적 재앙과 핵전쟁에 대한 공포는 여전히 역사의 진보에 대한 믿음을 가로막고 있다.

*황금시대: 사회의 발전이 최고조에 이르러 행복과 평화가 가득 찬 시대.

*디스토피아: 사회의 부정적인 측면이 극단화한 암울한 미래상.

<보기>의 ①~④와 가장 밀접한 역사관을 제시문에서 찾아 쓰시오.

<보기>

① 플라톤은 인간 사회가 야만 상태에서 출발하여 문명을 이루었다가 큰 파국을 겪고는 다시 야만으로 돌아가는 변화를 해 왔다고 주장했다.

② 콩도르세는 인류의 발전을 가로막을 어떤 제한도 존재하지 않음을 천명하고, 마치 동물이 점점 자신의 육체적 기능을 발전시켜 왔듯이 인간 역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보았다.

③ 로마의 역사가 리비우스는 '역사서를 통해 국가가 모방할 것은 택하고, 치욕적이며 부끄러운 것은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④ 마르크스는 각 역사 시대가 서로 대립되는 두 세력 간의 끊임없는 투쟁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진단하고, 그 과정을 통해 프롤레타리아 사회주의가 승리함으로써 역사가 완성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①: _____

②: _____

③: _____

④: _____

3. 출제 의도

제시문의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문항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분석적으로 판단한 후에 그 결과를 정확하게 기술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4. 출제 근거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수능 특강	EBS	EBS	2021	89~90쪽

5. 문항 해설

① 은 '다시 야만으로 돌아가는 변화'를 기술하였으므로 '순환 사관'에 해당한다. ② 는 '점점, 발전'의 핵심어가 확인된다는 점에서 '진보 사관'에 해당한다. ③은 '모방할 것(배울 것)과 피할 것'을 언급한 점에서 '감계 사관'에 해당한다. ④ 는 '역사가 완성될 것'이라고 한 점에서 '진보 사관'에 해당한다.

6. 채점 기준

- ①, ②, ③, ④의 각 항목이 정확하게 포함된 기술만 정답으로 처리함.
- 정답 외에 다른 답안을 추가로 기술한 경우는 오답으로 처리함.

답안	배점
①: 순환 사관	2
②: 진보 사관	3
③: 감계 사관	2
④: 진보 사관	3

[문제 5]

1. 일반 정보

유형	논술고사	
전형명	논술전형	
출제영역	국어	
출제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독서
출제범위	핵심개념 및 용어	논리학, 명제
예상 소요 시간	4분 전체 80분	

2. 문항 및 제시문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5~6)

논리학의 관심은 인간의 추론 능력에 있으며 추론이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어떤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새로운 사실을 이끌어 내는 방법이다. 이러한 추론은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가능하며,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추론뿐만 아니라 판단과 같은 다른 종류의 사고 작용도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추론을 하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나 알 수 있는 사실을 어떤 언어 형식으로 표현하느냐가 중요하다.

논리학에서 말하는 언어적 표현의 기본 단위를 '명제'라고 부른다. 그것은 구체적인 언어로 표현된 문장이어야 하기 때문에 언어의 사용에 필요한 문법적인 제약을 받게 된다. 하지만 그 언어가 반드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의사소통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자연 언어일 필요는 없다. 우리가 원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는 언어라면 수식이나 코드(code)와 같은 인공 언어라도 상관없는 것이다.

우리말로 된 문장과 영어로 된 문장이 똑같은 하나의 사실을 진술한다고 할 때 그 두 문장이 표현하는 명제는 같다. 어떤 사실을 진술하는 명제는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다. 이때 한 명제가 지닌 참과 거짓의 속성을 진릿값이라고 한다. 한 명제의 진위 여부는 그 진술이 사실과 부합되면 참이 되고 그렇지 못하면 거짓이 된다. 그런데 논리학에서는 사실과의 부합 여부를 물어보지 않는 언어 세계에 대한 명제를 다루기도 한다. 이를테면 '아버지는 남자이다.'와 같은 명제는 그것의 진위를 가려내기 위해 사실 여부를 물어볼 필요가 없다. 이 명제의 의미를 이해하는 사람은 누구나 곧 그것이 참 명제임을 알 수가 있다. '남자'라는 말의 뜻이 '아버지'라는 말의 뜻 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명제가 맺어 주는 두 개념의 관계에 의해서 진위를 파악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진위가 판단되는 명제를 '분석 명제'라고 한다.

분석 명제가 아니면서, 사실과의 부합 여부에 의존하지 않고 진위를 판단할 수 있는 명제도 있다. ㉠'지금 이곳은 비가 오거나 비가 오지 않는다.'처럼 하나의 주어와 서술어로 구성된 '단순 명제'가 둘 이상 결합한 명제를 '합성 명제'라고 한다. '지금 이곳은 비가 오거나 비가 오지 않는다.'는 어떠한 경우에도 참이 되는 문장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이 된다. 반면 '우리 반 학생들은 모두 교복을 입었지만, 우리 반의 어떤 학생들도 교복을 입지 않았다.'라는 명제는 문장 구조상으로 거짓이 될 수밖에 없다. 이처럼 두 개의 단순 명제로 구성된 합성 명제도 그것의 진위를 가려내기 위해 사실 여부를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다.

개념의 관계나 문장 구조에 의해 명제의 진위를 판단하는 것 이외에도 한 명제와 몇 개 명제들과의 관계에 의해서 진위를 결정하는 방법이 있다. 예를 들면 '아리스토텔레스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이다.'라는 명제가 참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려면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을 소개해 주는 철학사 책이나 철학 백과사전을 펼쳐 볼 수 있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가 아니다.'라는 명제의 진위를 판별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가 아니었던 사람들 중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있는지를 알아본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일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이다.'라는 긍정 명제의 진위를 가려내어 그것이 참이면 '아리스토텔레스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가 아니다.'라는 부정 명제는 거짓이라고 판단한다.

문제 저작권: 가천대학교 · 조판: SN독학기숙학원 (학습용)
정답 및 해설은 SNarGPT(snarGPT.ai)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명제의 진릿값이 다른 명제나 명제들의 진릿값에 의해서 결정되는 또 다른 예는 논리적 함축 관계에 있는 명제들이다. 가령 a와 b가 형제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서 a가 c의 아들이고 b도 c의 아들이라든지, a가 c의 형제이고 b도 c의 형제라는 사실을 통해 a와 b가 형제임을 알게 되는 것은 그런 사실들을 진술하는 명제들 간의 논리적 함축 관계에 의해서 알게 되는 방법이다.

<보기1>의 ①과 ②가 각각 어떤 명제에 해당하는지 <보기2>에서 모두 찾아 서술하시오.

<보기1>

① 총각은 기혼의 성년 남자이다.

② 플라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이 아니다.

<보기2>

분석 명제, 단순 명제, 합성 명제, 긍정 명제, 부정 명제

①: _____

②: _____

3. 출제 의도

제시문의 핵심 개념과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실제 사례에 적용하여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한다.

4. 출제 근거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수능 완성	EBS	EBS	2021	200

5. 문항 해설

정답:

①: 분석 명제, 단순 명제, 긍정 명제

②: 단순 명제, 부정 명제

해설:

①은 명제가 맺어 주는 두 개념의 관계에 의해 그 진위를 파악할 수 있는 분석 명제에 해당한다. 그리고 ①은 하나의 주어와 서술어로 구성된 단순 명제이며, 긍정문의 형식으로 나타난 긍정 명제이다.

②는 하나의 주어와 서술어로 구성된 단순 명제이며, 부정문의 형식으로 나타난 부정 명제이다.

6. 채점 기준

- ①, ②의 각 항목이 정확하게 기술된 경우에만 정답으로 처리함.
- ①은 순서에 상관없이 3개 모두 기술된 경우에만 정답으로 처리함.
- ②는 순서에 상관없이 2개 모두 기술된 경우에만 정답으로 처리함.
- 정답 외에 다른 답안을 추가로 기술한 경우는 오답으로 처리함.

답안	배점
①: 분석 명제, 단순 명제, 긍정 명제	5
②: 단순 명제, 부정 명제	5

[문제 6]

1. 일반 정보

유형	논술고사	
전형명	논술전형	
출제영역	국어	
출제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독서
출제범위	핵심개념 및 용어	논리학, 명제
예상 소요 시간	4분 전체 80분	

2. 문항 및 제시문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5~6)

논리학의 관심은 인간의 추론 능력에 있으며 추론이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어떤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새로운 사실을 이끌어 내는 방법이다. 이러한 추론은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가능하며,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추론뿐만 아니라 판단과 같은 다른 종류의 사고 작용도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추론을 하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나 알 수 있는 사실을 어떤 언어 형식으로 표현하느냐가 중요하다.

논리학에서 말하는 언어적 표현의 기본 단위를 '명제'라고 부른다. 그것은 구체적인 언어로 표현된 문장이어야 하기 때문에 언어의 사용에 필요한 문법적인 제약을 받게 된다. 하지만 그 언어가 반드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의사소통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자연 언어일 필요는 없다. 우리가 원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는 언어라면 수식이나 코드(code)와 같은 인공 언어라도 상관없는 것이다.

우리말로 된 문장과 영어로 된 문장이 똑같은 하나의 사실을 진술한다고 할 때 그 두 문장이 표현하는 명제는 같다. 어떤 사실을 진술하는 명제는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다. 이때 한 명제가 지닌 참과 거짓의 속성을 진릿값이라고 한다. 한 명제의 진위 여부는 그 진술이 사실과 부합되면 참이 되고 그렇지 못하면 거짓이 된다. 그런데 논리학에서는 사실과의 부합 여부를 물어보지 않는 언어 세계에 대한 명제를 다루기도 한다. 이를테면 '아버지는 남자이다.'와 같은 명제는 그것의 진위를 가려내기 위해 사실 여부를 물어볼 필요가 없다. 이 명제의 의미를 이해하는 사람은 누구나 곧 그것이 참 명제임을 알 수가 있다. '남자'라는 말의 뜻이 '아버지'라는 말의 뜻 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명제가 맺어 주는 두 개념의 관계에 의해서 진위를 파악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진위가 판단되는 명제를 '분석 명제'라고 한다.

분석 명제가 아니면서, 사실과의 부합 여부에 의존하지 않고 진위를 판단할 수 있는 명제도 있다. ㉠'지금 이곳은 비가 오거나 비가 오지 않는다.'처럼 하나의 주어와 서술어로 구성된 '단순 명제'가 둘 이상 결합한 명제를 '합성 명제'라고 한다. '지금 이곳은 비가 오거나 비가 오지 않는다.'는 어떠한 경우에도 참이 되는 문장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이 된다. 반면 '우리 반 학생들은 모두 교복을 입었지만, 우리 반의 어떤 학생들도 교복을 입지 않았다.'라는 명제는 문장 구조상으로 거짓이 될 수밖에 없다. 이처럼 두 개의 단순 명제로 구성된 합성 명제도 그것의 진위를 가려내기 위해 사실 여부를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다.

개념의 관계나 문장 구조에 의해 명제의 진위를 판단하는 것 이외에도 한 명제와 몇 개 명제들과의 관계에 의해서 진위를 결정하는 방법이 있다. 예를 들면 '아리스토텔레스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이다.'라는 명제가 참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려면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을 소개해 주는 철학사 책이나 철학 백과사전을 펼쳐 볼 수 있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가 아니다.'라는 명제의 진위를 판별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가 아니었던 사람들 중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있는지를 알아본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일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이다.'라는 긍정 명제의 진위를 가려내어 그것이 참이면 '아리스토텔레스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가 아니다.'라는 부정 명제는 거짓이라고 판단한다.

문제 저작권: 가천대학교 · 조판: SN독학기숙학원 (학습용)
정답 및 해설은 SNarGPT(snarGPT.ai)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명제의 진릿값이 다른 명제나 명제들의 진릿값에 의해서 결정되는 또 다른 예는 논리적 함축 관계에 있는 명제들이다. 가령 a와 b가 형제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서 a가 c의 아들이고 b도 c의 아들이라든지, a가 c의 형제이고 b도 c의 형제라는 사실을 통해 a와 b가 형제임을 알게 되는 것은 그런 사실들을 진술하는 명제들 간의 논리적 함축 관계에 의해서 알게 되는 방법이다.

<보기>의 내용을 참고하여 제시문의 ㉠이 항상 참이 되는 이유를 서술하시오.

<보기>

어떤 두 명제 p, q 가운데 한 명제가 참이면 다른 명제가 거짓일 수밖에 없고, 또 둘 가운에 한 명제가 거짓이면 다른 명제가 참일 수밖에 없는 관계를 '모순 관계'라고 한다. 명제 p, q가 모순 관계에 있는 합성 명제는 항상 참이 된다. 반면 어떤 두 명제 p, q가 둘 다 참일 수는 없지만, 둘 다 거짓일 수 있는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명제 p, q 사이의 관계를 '반대 관계'라고 한다.

3. 출제 의도

제시문과 <보기>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여, 이를 실제 사례에 적용하여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한다.

4. 출제 근거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수능 완성	EBS	EBS	2021	200

5. 문항 해설

정답:

㉠은 모순 관계에 있는 두 명제가 결합한 합성 명제이다.

해설:

㉠ '지금 이곳은 비가 오거나 비가 오지 않는다'는 두 명제 '지금 이곳은 비가 온다'와 '지금 이곳은 비가 오지 않는다'가 결합한 합성 명제이다. 그런데 이 두 명제는 <보기>의 모순 관계에 해당하므로 항상 참이 된다.

6. 채점 기준

정답: ㉠은 ①모순 관계에 있는 두 명제가 결합한 ②합성 명제이다

- 답안에 ①, ②의 핵심 내용이 드러난 경우에 각각 정답으로 처리함.
- ①에 대해서는 '(㉠을 구성하는) 두 명제의 관계가 모순관계이다'라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정답으로 처리함.
- ②에 대해서는 '㉠이 (두 명제가 결합한) 합성명제이다'라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정답으로 처리함.

예) ㉠은 두 명제가 결합해 있다.

㉠은 두 명제로 이루어져 있다.

㉠은 두 명제로 구성된다. 등

답안	배점
㉠은 ①모순 관계에 있는 두 명제가 결합한 합성 명제이다.	5
㉠은 모순 관계에 있는 두 명제가 결합한 ②합성 명제이다.	5

[문제 7]

1. 일반 정보

유형	논술고사	
전형명	논술전형	
출제영역	국어	
출제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출제범위	핵심개념 및 용어	
예상 소요 시간	분 전체 80분	

2. 문항 및 제시문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7~8)

(가)

[앞부분의 줄거리] 북곽 선생은 마을에서 학식이 높기로 유명한 선비이나, 한밤중에 과부와 밀회를 하는 장면을 사람들에게 들킬 위기에 처한다. 때마침 범이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마을로 내려온다.

북곽 선생은 몹시 놀라 뺑소니를 치면서도 남들이 자기를 알아볼까 두려워하였다. 그래서 다리를 들어 목에 걸치고는 귀신처럼 춤추고 귀신처럼 웃더니, 대문을 나서자 줄달음치다가 그만 들판의 구덩이에 빠져 버렸다. 그 속에는 똥이 가득 차 있었다. 구덩이에서 기어 올라와 고개를 내놓고 바라보았더니, 범이 길을 막고 있었다.

범은 얼굴을 찌푸리며 구역질을 하고, 코를 막고 고개를 왼쪽으로 돌리며 숨을 내쉬고는, "선비는 구린내가 심하구나!" 하였다.

북곽 선생이 머리를 조아리고 기어 와서, 세 번 절하고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들고는, "범의 덕이야말로 지극하다 하겠사옵니다. 대인(大人)은 그 가죽 무늬가 찬란하게 변하는 것을 본받고, 제왕은 그 걸음걸이를 배우며, 사람의 자식은 그 효성을 본받고, 장수는 그 위엄을 취하지요. 명성이 신령스러운 용과 나란히 드높아, 하나는 바람을 일으키고 하나는 구름을 일으키니, 하계에 사는 이 천한 신하는 감히 그 아랫자리에서 모시고자 하옵니다." 하였다. 그러자 범은 이렇게 꾸짖었다.

"가까이 오지 말라! 예전에 듣기를 유(儒)는 유(諛)*라더니, 과연 그렇구나. 너는 평소에 천하의 못된 이름을 다 모아 함부로 나에게 갖다 붙이다가, 이제 급하니까 면전에서 아첨을 하니, 장차 누가 너를 신뢰하겠느냐?

무릇 천하의 이치란 한가지다. 범이 실로 악하다면, 사람의 본성도 악할 것이다. 사람의 본성이 선하다면, 범의 본성도 선할 것이다.

- 박지원, 「호질(虎叱)」

*유(諛): 아첨할 유.

(나)

제5과장 양반·선비 마당

초랭이: 양반요, 나온 김에 서로 인사나 하소. (인사하는 행동)

양반: 여보게 선비, 우리 통성명이나 하세. 선비: 예, 그러시더.

(양반과 선비가 서로 절을 하려고 할 때, 초랭이가 양반 머리 위에 엉덩이를 돌려대고 선비에게 자기가 인사를 한다.)

초랭이: 헤헤…… 니 왔니껴?*

양반: 옛기, 이놈.

(중략)

문제 저작권: 가천대학교 · 조판: SN독학기숙학원 (학습용)
정답 및 해설은 SNarGPT(snarGPT.ai)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비: 여보게 양반 – 선비: 여보게 양반, 자네가 감히 내 앞에서 이럴 수가 있는가?양반: 허허, 무엇이 어째? 그대는 내한테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선비: 아니, 그라마 그대는 진정 내한테 그럴 수가 있는가.양반: 허허, 뭣이 어째? 그러면 자네 지체가 나만 하단 말인가?선비: 아니 그래, 그대 지체가 내보다 낫단 말인가?양반: 암, 낫고말고. 선비: 그래, 낫긴 뭐가 나아.양반: 나는 사대부의 자손일세. 선비: 아니 뭐라꼬, 사대부? 나는 팔대부의 자손일세.양반: 아니, 팔대부? 그래, 팔대부는 뭐로?* 선비: 팔대부는 사대부의 갑절이지.양반: 뭐가 어째, 어흠, 우리 할뱀*은 문하시중을 지내셨거든.선비: 아, 문하시중. 그까짓 것…… 우리 할뱀은 바로 문상시대인걸.양반: 아니 뭐, 문상시대? 그건 또 머로?선비: 에헴, 문하보다는 문상이 높고 시중보다는 시대가 더 크다 이 말일세.양반: 허허, 그것 참 빌 꼬라지 다 보겠네. 그래, 지체만 높으면 제일인가?선비: 에헴, 그라만 또 머가 있단 말인가? 양반: 학식이 있어야지, 학식이. 나는 사서삼경을 다 읽었다네.선비: 뭐 그까짓 사서삼경 가지고. 어흠, 나는 팔서육경을 다 읽었네.

양반: 아니, 뭐? 팔서육경? 도대체 팔서는 어디에 있으며 그래 대관절 육경은 또 뭔가? (초랭이는 여태까지 두 사람의 얘기를 귀담아듣다가 잽싸게 끼어든다.)

- 작자 미상,「하회 별신굿 탈놀이」

*니 왔니껴?: 너, 왔습니까?

*뭐로?: 뭐야?

*할뱀: 할아버지.

제시문 (가)와 (나)에서 <보기>의 ⓐ에 해당하는 단어를 모두 찾아 쓰시오.

<보기>

풍자는 표현의 대상이 되는 현실의 특징, 현실을 바라보는 주체의 태도, 이를 표현하는 방법에서 다른 형식과는 차별되는 특징이 있다. 우선 풍자가 표현하려는 것은 현실의 부정적 측면이다. 풍자의 주체는 풍자의 대상을 직설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희화화나 자기 폭로 등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이러한 풍자의 방법으로 작가는 ⓐ 언어유희의 기법을 활용한다. 또한 ⓑ 인물의 우스꽝스러운 위장과 행위를 통해 비굴하고 떳떳하지 못한 태도를 희화화하기도 한다. 이러한 풍자는 독자의 비판적인 인식을 끌어내는 중요한 서사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①: _____ ②: _____ ③: _____

④: _____

3. 출제 의도

문학에서 중요한 기법 중에 하나인 풍자적인 방법을 통해 작품을 보다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서사에 대한 이해와 논리적인 분석 능력을 평가하려는 문제다. 언어유희는 서사적 언어행위를 해석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철학적 사회학적 의미를 갖는 것으로 비판담론의 해석학적 기초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다성적인 서사나 판소리, 마당극과 같은 전통서사에서는 형식적인 요소가 아니라 의미와 내용을 확장하는 중요한 요소인 것이다. 따라서 고전소설과 전통 극과의 융합지문을 통해 서사적 장치로서의 언어유희의 기법과 작품의 내적 의미를 심화하는 서사적 표현 전략을 파악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다.

4. 출제 근거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수능특강	EBS	EBS	2021	200쪽

5. 문항 해설

풍자의 주체로서 풍자하는 대상을 직설적으로 지적하거나 설명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어리석음을 폭로하거나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방법에 해당하는 것이 박지원의「양반전」,「하회 별신굿 탈놀이」에 공통적으로 드러나는데, 그것이 바로 언어유희이다. 박지원의「양반전」의 유(諛),「하회 별신굿 탈놀이」의 팔대부, 문상시대, 팔서육경은 부조리한 조선사회의 한 층면을 언어유희를 통해 드러내는 것으로 조선시대 양반의 모순과 이중성, 부조리함 등 두 작품의 핵심적인 의미를 관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6. 채점 기준

- ①, ②, ③, ④의 각 항목이 정확하게 포함된 기술만 정답으로 처리함.
- ①~④의 배열 순서는 상관 없음.
- ①은 한자를 병기하지 않아도 정답으로 처리함. 한자를 병기했는데, '유(儒)'를 병기한 경우 오답으로 처리함.
- 정답 외에 다른 답안을 추가로 기술한 경우는 오답으로 처리함.

답안	배점
①: 유(諛)	①: 4점
②: 팔대부	②: 2점
③: 문상시대	③: 2점
④: 팔서육경	④: 2점

[문제 8]

1. 일반 정보

유형	논술고사	
전형명	논술전형	
출제영역	국어	
출제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출제범위	핵심개념 및 용어	
예상 소요 시간	분 전체 80분	

2. 문항 및 제시문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7~8)

(가)

[앞부분의 줄거리] 북곽 선생은 마을에서 학식이 높기로 유명한 선비이나, 한밤중에 과부와 밀회를 하는 장면을 사람들에게 들킬 위기에 처한다. 때마침 범이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마을로 내려온다.

북곽 선생은 몹시 놀라 뺑소니를 치면서도 남들이 자기를 알아볼까 두려워하였다. 그래서 다리를 들어 목에 걸치고는 귀신처럼 춤추고 귀신처럼 웃더니, 대문을 나서자 줄달음치다가 그만 들판의 구덩이에 빠져 버렸다. 그 속에는 똥이 가득 차 있었다. 구덩이에서 기어 올라와 고개를 내놓고 바라보았더니, 범이 길을 막고 있었다.

범은 얼굴을 찌푸리며 구역질을 하고, 코를 막고 고개를 왼쪽으로 돌리며 숨을 내쉬고는, "선비는 구린내가 심하구나!" 하였다.

북곽 선생이 머리를 조아리고 기어 와서, 세 번 절하고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들고는, "범의 덕이야말로 지극하다 하겠사옵니다. 대인(大人)은 그 가죽 무늬가 찬란하게 변하는 것을 본받고, 제왕은 그 걸음걸이를 배우며, 사람의 자식은 그 효성을 본받고, 장수는 그 위엄을 취하지요. 명성이 신령스러운 용과 나란히 드높아, 하나는 바람을 일으키고 하나는 구름을 일으키니, 하계에 사는 이 천한 신하는 감히 그 아랫자리에서 모시고자 하옵니다." 하였다. 그러자 범은 이렇게 꾸짖었다.

"가까이 오지 말라! 예전에 듣기를 유(儒)는 유(諛)*라더니, 과연 그렇구나. 너는 평소에 천하의 못된 이름을 다 모아 함부로 나에게 갖다 붙이다가, 이제 급하니까 면전에서 아첨을 하니, 장차 누가 너를 신뢰하겠느냐?

무릇 천하의 이치란 한가지다. 범이 실로 악하다면, 사람의 본성도 악할 것이다. 사람의 본성이 선하다면, 범의 본성도 선할 것이다.

- 박지원,「호질(虎叱)」

*유(諛): 아첨할 유.

(나)

제5과장 양반·선비 마당

초랭이: 양반요, 나온 김에 서로 인사나 하소. (인사하는 행동)

문제 저작권: 가천대학교 · 조판: SN독학기숙학원 (학습용)
정답 및 해설은 SNarGPT(snarGPT.ai)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반: 여보게 선비, 우리 통성명이나 하세. 선비: 예, 그러시더.

(양반과 선비가 서로 절을 하려고 할 때, 초랭이가 양반 머리 위에 엉덩이를 돌려대고 선비에게 자기가 인사를 한다.)

초랭이: 헤헤…… 니 왔니껴?*

양반: 옛기, 이놈.

(중략)

선비: 여보게 양반 – 선비: 여보게 양반, 자네가 감히 내 앞에서 이럴 수가 있는가?양반: 허허, 무엇이 어째? 그대는 내한테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선비: 아니, 그라마 그대는 진정 내한테 그럴 수가 있는가.양반: 허허, 뭣이 어째? 그러면 자네 지체가 나만 하단 말인가?선비: 아니 그래, 그대 지체가 내보다 낫단 말인가?양반: 암, 낫고말고. 선비: 그래, 낫긴 뭐가 나아.양반: 나는 사대부의 자손일세. 선비: 아니 뭐라꼬, 사대부? 나는 팔대부의 자손일세.양반: 아니, 팔대부? 그래, 팔대부는 뭐로?* 선비: 팔대부는 사대부의 갑절이지.양반: 뭐가 어째, 어흠, 우리 할뱀*은 문하시중을 지내셨거든.선비: 아, 문하시중. 그까짓 것…… 우리 할뱀은 바로 문상시대인걸.양반: 아니 뭐, 문상시대? 그건 또 머로?선비: 에헴, 문하보다는 문상이 높고 시중보다는 시대가 더 크다 이 말일세.양반: 허허, 그것 참 빌 꼬라지 다 보겠네. 그래, 지체만 높으면 제일인가?선비: 에헴, 그라만 또 머가 있단 말인가? 양반: 학식이 있어야지, 학식이. 나는 사서삼경을 다 읽었다네.선비: 뭐 그까짓 사서삼경 가지고. 어흠, 나는 팔서육경을 다 읽었네.

양반: 아니, 뭐? 팔서육경? 도대체 팔서는 어디에 있으며 그래 대관절 육경은 또 뭔가? (초랭이는 여태까지 두 사람의 얘기를 귀담아듣다가 잽싸게 끼어든다.)

- 작자 미상,「하회 별신굿 탈놀이」

*니 왔니껴?: 너, 왔습니까?

*뭐로?: 뭐야?

*할뱀: 할아버지.

위 <보기>의 ⓑ에 해당하는 문장을 제시문 (가)에서 찾아 쓰시오.

3. 출제 의도

고전소설의 해학과 냉소적인 태도를 환기시켜 그것의 문학적 표현 중에 하나도 인물에 대한 희화화가 있다. 풍자문학이 비판과 교훈적인 내용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지만 여기에는 공격적 태도의 조소(嘲笑) 문학적인 요소도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인물의 외양적인 묘사와 동시에 이에 함의되어 있는 조소적인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조소적 특성 또한 독자의 비판적인 인식을 끌어내는 중요한 서사적 장치가 풍자의 효과라도 할 수 있다.

4. 출제 근거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수능	EBS	EBS	2021	200쪽

5. 문항 해설

「호질」의 북곽선생이 자신의 부도덕함을 들킬 위기에 처하자 당황하는 모습이 (그래서) “다리를 들어 목에 걸치고는 귀신처럼 춤추고 귀신처럼 웃더니, 대문을 나서자 줄달음치다가 그만 들판의 구덩이에 빠져 버렸다.” 이 부분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비굴하고 떳떳하지 못한 태도를 희화화가 범을 만나 아첨하는 행동만큼이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

6. 채점 기준

- 정답의 전체 내용이 답안에 기술된 경우에만 정답으로 인정함.(단 첫 부분의 ‘그래서’는 포함되지 않아도 정답으로 인정함)(①: 8점 배점).
- 답안의 표기가 완전히 정답과 정확하게 일치한 경우.(단, 띄어쓰기, 문장부호는 제외함.)(②: 2점 배점)

답안	배점
(그래서) 다리를 들어 목에 걸치고는 귀신처럼 춤추고 귀신처럼 웃더니, 대문을 나서자 줄달음치다가 그만 들판의 구덩이에 빠져 버렸다.	8점
(그래서) 다리를 들어 목에 걸치고는 귀신처럼 춤추고 귀신처럼 웃더니, 대문을 나서자 줄달음치다가 그만 들판의 구덩이에 빠져 버렸다.	2점

[문제 9]

1. 일반 정보

유형	논술고사	
전형명	논술전형	
출제영역	국어	
출제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문학
출제범위	핵심개념 및 용어	소설, 채만식
예상 소요 시간	분 전체 80분	

2. 문항 및 제시문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내 이상과 계획은 이렇거든요.

우리 집 다이쇼가 나를 자별히 귀애하고 신용을 하니깐 인제 한 십 년만 더 있으면 한밑천 들여서 따로 장사를 시켜 줄 그런 눈치거든요.

그러거들랑 그것을 언덕 삼아 가지고 나는 삼십 년 동안 예순 살 환갑까지만 장사를 해서 꼭 십만 원을 모을 작정이지요. 십만 원이면 죄선 부자로 쳐도 천석꾼이니 뭐, 떵떵거리고 살 게 아니라구요?

그리고 우리 다이쇼도 한 말이 있고 하니까 나는 내지인 규수한테로 장가를 들래요. 다이쇼가 다 알아서 얌전한 자리를 골라 중매까지 서 준다고 그랬어요. 내지 여자가 참 좋지요. 나는 죄선 여자는 거저 주어도 싫어요. 구식 여자는 얌전은 해도 무식해서 내지인하고 교제하는 데 안됐고, 신식 여자는 식자나 들었다는 게 건방져서 못쓰고, 도무지 그래서 죄선 여자는 신식이고 구식이고 다 제바리여요.

내지 여자가 참 좋지 뭐. 인물이 개개 일자로 이쁘겠다, 얌전하겠다, 상냥하겠다, 지식이 있어도 건방지지 않겠다, 좀이나 좋아!

그리고 내지 여자한테 장가만 드는 게 아니라 성명도 내지인 성명으로 갈고 집도 내지인 집에서 살고 옷도 내지 옷을 입고 밥도 내지식으로 먹고 아이들도 내지인 이름을 지어서 내지인 학교에 보내고…….

내지인 학교라야지 죄선 학교는 너절해서 아이들 버려 놓기나 꼭 알맞지요.

그리고 나도 죄선말은 싹 걷어치우고 국어만 쓰고요.

이렇게 다 생활 법식부터도 내지인처럼 해야만 돈도 내지인처럼 잘 모으게 되거든요.

(중략)

“사람이란 것은 누구를 물론허구 말이다, 아첨하는 것같이 더러운 게 없느니라.”

“아첨이요?”

“저 위로는 제왕, 밑으로는 걸인, 그 모든 사람이 위선 시방 이 제도의 이 세상에서 말이다, 제가끔 제 분수대루 살어가는 데 있어서 말이다, 제 개성을 속여 가면서꺼정 생활에다가 아첨하는 것같이 더러운 것이 없고, 그런 사람같이 가련한 사람은 없느니라. 사람이란 건 밥 두 그릇이 하필 밥 한 그릇보다 더 배가 부른 건 아니니까.”

“그건 무슨 뜻인데요?”

“네가 일본인 여자와 결혼을 해서 성명까지 갈고 모든 생활 법도를 일본화하겠다는 것이 말이다.”

“네, 그게 좋잖어요?”

문제 저작권: 가천대학교 · 조판: SN독학기숙학원 (학습용)
정답 및 해설은 SNarGPT(snarGPT.ai)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말이다, 진실로 깊은 교양이나 어진 지혜의 판단에서 우러나온 것이라면 그도 모를 노릇이겠지. 그렇지만 나는 보매, 네가 그런다는 것은 다른 뜻으로 그러는 것 같다."

"다른 뜻이라니요?"

"네 주인의 비위를 맞추고, 이웃의 비위를 맞추고 하자고……."

"그야 물론이지요! 다이쇼의 신용을 받어야 하고, 이웃 내지인들하구도 좋게 지내야지요. 그래야 할 게 아니겠어요?" "……."

"아저씨는 아직두 세상 물정을 모르시오. 나이는 나보담 많구 대학교 공부까지 했어도 일찌감치 고생살이를 한 나만큼 세상 물정은 모릅니다. 시방이 어느 세상인데 그러시우?"

"이 애?"

"네?"

"네가 방금 세상 물정이랬지?"

"네."

"앞길이 환하니 트였다구 그랬지?"

"네."

"환갑까지 십만 원 모은다구 그랬지?"

"네."

"네가 말하는 세상 물정하구 내가 말하려는 세상 물정하구 내용이 다르기도 하지만, 세상 물정이란 건 그야말로 그리 만만한 게 아니다."

"네?"

"사람이란 건 제아무리 날구 뛰어도 이 세상에 형적 없이 그러나 세차게 주욱 흘러가는 힘, 그게 말하자면 세상 물정이겠는데, 결국 그것의 지배하에서 그것을 따라가지 별수가 없는 거다."

"네?"

"쉽게 말하면 계획이나 기회를 아무리 억지루 만들어 놓아도 결과가 뜻대루는 안 된단 말이다."

- 채만식,「치숙」

문항 <보기> 포함

<보기>는 서술자의 서사 전략에 대한 설명이다. 제시문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서술자의 유형과 서사 전략을 <보기>에서 찾아 서술하시오.

<보기>

서사 작품에서 서술자의 선택은 이야기를 전달하는 서사 전략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야기 밖의 서술자'는 인물과 사건 간의 거리두기를 통해 독자의 몰입을 방해하는 방식으로 현실 인식을 드러낸다. '이야기 안의 서술자'는 신빙성 없는 태도를 통해 자신의 무지함과 부도덕함을 스스로 폭로하기도 한다. 또한 '전지적 관점의 서술자'는 인물의 내적 심리를 구체적으로 전달하여 독자와의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한다.

① 서술자의 유형:

② 서사 전략:

3. 출제 의도

소설의 서사적 요소로는 플롯과 인물, 형상화, 서술자, 거리를 들 수 있다. 이와 같이 서술자는 소설의 서사 작품에서 서술자와 서술자의 전략은 작품의 의미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서사장치이다.

"채만식의 대표적인 풍자 소설 중에 일제 강점 아래에서 사회주의 운동으로 옥살이를 한 '아저씨'와 친일적 소시민인 '나'의 내력과 둘 간의 대화를 그리고 있다. 이 작품의 전면에 놓이는 것은 아저씨를 조롱하는 '나'의 목소리이다. 하지만 '나'가 말할수록 사회의식과 민족의식이 결여된 '나'의 속물적 태도가 폭로된다. 이를 통해 이 작품은 친일적 소시민의 속물적 삶을 신랄하게 풍자한다."는 수능특강의 해설을 기반으로 작품의 내용뿐만 아니라 이를 드러내는 서사적 장치의 전략을 이해하고 있는가를 평가하고자 한 것이다.

4. 출제 근거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수능 특강	EBS	EBS	2021	263

5. 문항 해설

채만식의 대표적인 풍자 소설 중에 하나인「치숙」을 통해 소설의 중요한 서사 장치로서 서술자의 전략을 서사적 의미는 중요한 관련성을 갖고 있다. 서술자의 유형에 따른 서사 전략을 통해 작가의 창작 의도를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작품은 채만식의 작가적 특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작품으로 어리석고 신빙성 없는 화자를 통해 식민지 현실을 비판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다시 말해 서사를 이끌어가는 '나'는 아저씨와의 대화를 통해 스스로 얼마나 어리석고 한심한 인간인가를 드러내며 이를 통해 독자로 하여금 몰입보다는 비판적인 인식을 갖게 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자신의 무지함과 부도덕함을 스스로 폭로하는 '나'는 이야기 안의 서술자이자 신빙성 없는 화자의 전형적인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6. 채점 기준

- ①, ②의 각 항목이 정확하게 포함된 기술만 정답으로 처리함.
- ①에 대해서는 '서술자가 이야기 안에 존재한다'라는 의미가 드러나면 정답으로 처리함.

예) 이야기 안 서술자,

이야기 안에 있는 서술자

이야기 안에 위치하는 서술자

이야기 속 서술자 등

- ①에서 정답과 관련이 없는 내용이 언급되면 오답으로 처리함.
- ②에 대해서는 '신빙성 없는 태도', '무지함과 부도덕함을 스스로 폭로'라는 핵심 내용이 포함된 기술만 정답으로 처리함.
- ②에서 정답과 다른 표현이 사용되더라도 의미가 동일하면 정답으로 처리함.
- ②에서 정답 외에 정답과 관련이 없는 내용이 추가로 언급되면 오답으로 처리함.

답안	배점
① (서술자의 유형): 이야기 안의 서술자	5점
② (서술 전략): 신빙성 없는 태도를 통해 자신의 무지함과 부도덕함을 스스로 폭로하기도 한다.	5점

수학

[문제 10]

1. 일반 정보 [인문 10]

유형	논술고사	
전형명	논술전형	
출제영역	적분	
출제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수학 I, 수학II
출제범위	핵심개념 및 용어	적분
예상 소요 시간	2 분 전체 80분	

2. 문항 및 제시문

정의역이 $\{x|x \geq 0\}$인 함수 $f(x) = ax^2$ $(0 < a < 1)$의 역함수를 $g(x)$라 하자. 두 곡선 $y = f(x)$, $y = g(x)$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S = \frac{3}{4}$일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는 다음의 풀이 과정을 완성하시오.

두 곡선 $y = f(x)$, $y = g(x)$의 교점의 x좌표는 $x = 0$과 $x =$
①
이다.

문제 저작권: 가천대학교 · 조판: SN독학기숙학원 (학습용)
정답 및 해설은 SNarGPT(snarGPT.ai)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넓이를 정적분으로 나타내면 $S=$
②
이고, 이 적분의 값을 a에 대한 식으로 쓰면 $S=$
③
이다. $S=\frac{3}{4}$이므로 상수 $a=$
④
이다.

3. 출제 의도

적분의 활용의 이해

4. 출제 근거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수능완성	EBS 교육방송 편집부	한국교육방송공사	2021	83

5. 문항 해설

두 곡선 $y=f(x)$, $y=g(x)$은 역함수 관계이므로 직선 $y=x$에 대하여 대칭이고 두 곡선의 교점은 $ax^2=x$를 만족하므로 x좌표는 $x=0$과 $x=\frac{1}{a}$이다.

따라서 적분을 활용한 넓이를 구하는 식은 $S=2\int_0^{\frac{1}{a}}x-ax^2dx$ 이다.

이고, 계산하면 $S=2\int_0^{\frac{1}{a}}x-ax^2dx=2\left[\frac{1}{2}x^2-\frac{a}{3}x^3\right]_0^{\frac{1}{a}}=\frac{1}{3a^2}$ 이다.

따라서 $S=\frac{3}{4}$이므로 $a=\frac{2}{3}$이다.

6. 채점 기준

답안	배점
① $x=\frac{1}{a}$ 또는 $\frac{3}{2}$	2
② $S=2\int_0^{\frac{1}{a}}x-ax^2dx$ 또는 $S=\int_0^{\frac{1}{a}}\sqrt{\frac{x}{a}}-ax^2dx$ 또는 $S=\frac{1}{a^2}-2\int_0^{\frac{1}{a}}ax^2dx$	4
③ $S=\frac{1}{3a^2}$	2
④ $a=\frac{2}{3}$	2

[문제 11]

1. 일반 정보 [인문 A 11]

유형	논술고사	
전형명	논술전형	
출제영역	지수와 로그	
출제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수학 I, 수학II
출제범위	핵심개념 및 용어	지수 로그
예상 소요 시간	2 분 전체 80분	

2. 문항 및 제시문

1이 아닌 서로 다른 두 양수 a,b에 대하여 두 집합 A,B를
$A=\{1,\log_a b\}$, $B=\left\{\frac{3}{2},2,3\log_2 a-2\log_2 b\right\}$
라 하자. $A\subset B$ 일 때, ab^2의 값을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3. 출제 의도

지수와 로그의 이해

4. 출제 근거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수능특강	EBS 교육방송 편집부	한국교육방송공사	2021	17페이지(8번)

5. 문항 해설

$A\subset B$ 이므로, $3\log_2 a-2\log_2 b=1$ 이다. 따라서, $\log_2\frac{a^3}{b^2}=1, a^3=2b^2$

$\log_a b=\frac{3}{2}$ 또는 $\log_a b=2$

$\log_a b=\frac{3}{2}, \Rightarrow b=a^{3/2}$ 따라서, $a^3=2b^2$ 과 연립하면 $a^3=2(a^{3/2})^2=2a^3$ 즉 $a=0$이 되어 조건을 만족하지 않음

$\log_a b=2$ => $b=a^2$, $a^3=2b^2$ 과 연립하면 $a^3=2(a^2)^2=2a^4$ a가 0이 아니므로, $a=\frac{1}{2}$. $ab^2=aa^4=a^5=\frac{1}{32}$

- 풀이2

$\log_a 2+2\log_a b=3$를 계산하고, $\log_a b=\frac{3}{2}$ 또는 $\log_a b=2$의 경우를 고려해도 됨.

6. 채점 기준

답안	배점
$\log_2\frac{a^3}{b^2}=1$ 또는 $a^3=2b^2$	2
$\log_a b=\frac{3}{2}$ 일 경우는 $a=0$이 되어 조건을 만족하지 않음	3
$\log_a b=2$ 이면 $a=\frac{1}{2}$ 또는 $b=\frac{1}{4}$	3
$ab^2=\frac{1}{32}$	2

[문제 12]

1. 일반 정보 [인문 A 12]

유형	논술고사	
전형명	논술전형	
출제영역	수학(삼각함수)	
출제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수학 I, 수학II
출제범위	핵심개념 및 용어	삼각함수
예상 소요 시간	2 분 전체 80분	

2. 문항 및 제시문

x에 대한 이차방정식 $kx^2-(k+2)x+(k+1)=0$의 두 근이 $\sin\theta$와 $\cos\theta$일 때, θ의 값을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단, k는 상수이고 $0\le\theta\le\pi$)

3. 출제 의도

삼각함수를 포함한 방정식의 해 구하기

4. 출제 근거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수능 완성	EBS 교육방송 편집부	한국교육방송공사	2021	24

5. 문항 해설

$(\sin\theta+\cos\theta)^2=1+2\sin\theta\cos\theta$이고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부터
$\sin\theta+\cos\theta=\frac{k+2}{k}$, $\sin\theta\cos\theta=\frac{k+1}{k}$이므로 $\left(\frac{k+2}{k}\right)^2=1+2\frac{k+1}{k}$. 정리하여 풀면 $k=2$, 또는 $k=-1$. 이때 $k=2$이면 $\sin\theta\cos\theta=\frac{3}{2}>1$이므로 부적합하다. 따라서 $\sin\theta+\cos\theta=-1$이고 $\sin\theta\cos\theta=0$. $0\le\theta\le\pi$에서 이를 만족하는 θ는 π.

6. 채점 기준

문제 저작권: 가천대학교 · 조판: SN독학기숙학원 (학습용)
정답 및 해설은 SNarGPT(snarGPT.ai)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안	배점
$\sin\theta+\cos\theta=\frac{k+2}{k}$, $\sin\theta\cos\theta=\frac{k+1}{k}$ 또는 $\left(\frac{k+2}{k}\right)^2=1+2\frac{k+1}{k}$	4
$k=2,-1$	2
$k=2$는 부적합.	2
$k=-1$이면 θ는 π.	2

[문제 13]

1. 일반 정보 [인문 A 13]

유형	논술고사	
전형명	논술전형	
출제영역	수열	
출제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수학 I, 수학II
출제범위	핵심개념 및 용어	다양한 수열의 규칙
예상 소요 시간	5 분 전체 80분	

2. 문항 및 제시문

수열 $\{a_n\}$은 $a_1>0$, $a_4+a_5=0$이고,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a_{n+2}=a_{n+1}-a_n$을 만족시킨다. 수열 $\{a_n\}$의 첫째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S_n이라 할 때, $S_n<0$을 만족시키는 300이하의 자연수 n의 개수를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3. 출제 의도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몇 개의 항을 나열하여 수열의 규칙을 찾는 능력을 확인

4. 출제 근거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수능완성 나형	EBS 교육방송 편집부	한국교육방송공사	2021	42

5. 문항 해설

수열 $\{a_n\}$ 의 $a_4=\alpha, a_5=-\alpha$라 할 경우 $a_3=a_4-a_5=\alpha-(-\alpha)=2\alpha$,
$a_2=a_3-a_4=2\alpha-\alpha=\alpha, a_1=a_2-a_3=\alpha-2\alpha=-\alpha, a_6=a_5-a_4=-\alpha-\alpha=-2\alpha$, $a_7=a_6-a_5=-2\alpha-(-\alpha)=-\alpha$,결국 $a_n=a_{n+6}$

$$\sum_{k=1}^{6}a_k=a_1+a_2+a_3+a_4+a_5+a_6=-\alpha+\alpha+2\alpha+\alpha-\alpha-2\alpha=0$$

$S_1>0, S_2=0, S_3<0, S_4<0, S_5<0, S_6=0$ 이므로
$S_n<0$을 만족시키는 300이하의 n은 $50\times3=150$

6. 채점 기준

답안	배점
$a_n=a_{n+6}$ 또는 $\{-\alpha,\alpha,2\alpha,\alpha,-\alpha,-2\alpha\}$ 규칙적으로 반복된다.	3
$S_6=0$ 또는 $a_1+a_2+a_3+a_4+a_5+a_6=0$ 또는$-\alpha+\alpha+2\alpha+\alpha-\alpha-2\alpha=0$	2
$S_1>0, S_2=0, S_3<0, S_4<0, S_5<0, S_6=0$ 또는 S_3, S_4, S_5 3개가 음수이다.	3
150	2

[문제 14]

1. 일반 정보 [인문 A 14]

유형	논술고사	
전형명	논술전형	
출제영역	수학(극한)	
출제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수학 I, 수학II
출제범위	핵심개념 및 용어	극한
예상 소요 시간	2 분 전체 80분	

2. 문항 및 제시문

함수 $f(x)=\begin{cases}\frac{\sqrt{x+1}-a}{x-1} & (x>1)\\ \frac{x+b}{\sqrt{1+x}-\sqrt{1-x}} & (x\le1)\end{cases}$ 가 $x=1$에서 연속일 때,
상수 a와 b의 값을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3. 출제 의도

연속 함수의 정의 이해 확인.

4. 출제 근거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수능 완성	EBS 교육방송 편집부	한국교육방송공사	2021	54(25번)

5. 문항 해설

$x=1$에서 함수 f가 연속이 되기 위해서는 $\lim_{x\to1+}\frac{\sqrt{x+1}-a}{x-1}=f(1)=\frac{1+b}{\sqrt{2}}$가 성립해야 하고, 극한 $\lim_{x\to1+}\frac{\sqrt{x+1}-a}{x-1}$가 존재하므로 $a=\sqrt{2}$이다. 따라서

$$\lim_{x\to1+}\frac{\sqrt{x+1}-a}{x-1}=\lim_{x\to1+}\frac{\sqrt{x+1}-\sqrt{2}}{x-1}=\lim_{x\to1+}\frac{1}{\sqrt{x+1}+\sqrt{2}}=\frac{1}{2\sqrt{2}}$$

이므로 $\frac{1+b}{\sqrt{2}}=\frac{1}{2\sqrt{2}}$. 결국, $b=-\frac{1}{2}$.

6. 채점 기준

답안	배점
$a=\sqrt{2}$	2
$\lim_{x\to1+}\frac{\sqrt{x+1}-a}{x-1}=\frac{1}{2\sqrt{2}}$	3
$\lim_{x\to1-}\frac{x+b}{\sqrt{1+x}-\sqrt{1-x}}=\frac{1+b}{\sqrt{2}}$ 또는 $f(1)=\frac{1+b}{\sqrt{2}}$	3
$b=-\frac{1}{2}$	2

[문제 15]

1. 일반 정보 [인문 A 15]

유형	논술고사	
전형명	논술전형	
출제영역	미분	
출제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수학 I, 수학II
출제범위	핵심개념 및 용어	미분, 속도
예상 소요 시간	4 분 전체 80분	

2. 문항 및 제시문

문제 저작권: 가천대학교 · 조판: SN독학기숙학원 (학습용)
정답 및 해설은 SNarGPT(snarGPT.ai)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 점 P,Q의 시각 $t(t \geq 0)$에서의 위치 x_1,x_2가 $x_1 = 3t^3 - 3t^2 + 7t$, $x_2 = 2t^3 + 3t^2 - 2t$이다. 두 점 P,Q가 동시에 원점을 출발한 후 처음으로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 t_a와 처음으로 만나는 순간 t_b의 값을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3. 출제 의도

다항함수의 미분의 활용

4. 출제 근거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수능 완성	EBS 교육방송 편집부	한국교육방송공사	2021	73쪽 41번

5. 문항 해설

$x_1 - x_2 = t^3 - 6t^2 + 9t = t(t-3)^2$이므로 $t_b = 3$이다. 한편 두 점의 속도는 각각 $v_1 = \frac{dx_1}{dt} = 9t^2 - 6t + 7$, $v_2 = \frac{dx_2}{dt} = 6t^2 + 6t - 2$이다.

$v_1 - v_2 = 3t^2 - 12t + 9 = 3(t-1)(t-3)$이므로 $t_a = 1$이다.

6. 채점 기준

답안	배점
$v_1 = x_1' = 9t^2 - 6t + 7$	2
$v_2 = x_2' = 6t^2 + 6t - 2$	2
$t_a = 1$	3
$t_b = 3$	3

문제 저작권: 가천대학교 · 조판: SN독학기숙학원 (학습용)
정답 및 해설은 SNarGPT(snarGPT.ai)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